

시편 69편 묵상 (1) -

성전을 향한 열심을 품은 시인은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개역	사역
<p>다윗의 시, 영장으로 소산니메 맞춘 노래.</p> <p>1 하나님이며,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p> <p>2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물이 내게 넘치나이다.</p> <p>3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p> <p>4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무리히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p> <p>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 주게 되었나이다.</p> <p>5 하나님이며,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p> <p>6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주를 찾는 자로 나를 인하여 욕을 당케 마옵소서.</p> <p>7 내가 주를 위하여 뒤흔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p> <p>8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外人)이 되었나이다.</p> <p>9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뒤흔하는 뒤흔이 내게 미쳤나이다.</p> <p>10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p> <p>11 내가 굶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저희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p> <p>12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p> <p>13 여호와여, 열납하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며,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p>	<p>지휘자에게, 나리꽃 가락으로, 다윗.</p> <p>1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목까지 물이 차올라 왔습니다.</p> <p>2 깊은 수렁 속에 빠지니 발을 디딜 곳이 없습니다. 깊은 물속에 빠지니 큰 물결이 저를 휩쓸어 갑니다.</p> <p>3 목이 타도록 부르짖다가 저는 기진하였고, 나의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두 눈은 침침해졌습니다.</p> <p>4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거짓으로 나를 없애려는 원수들이 힘도 셉니다. 흠치지 않은 물건이라도 나는 물어내야 합니다.</p> <p>5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의 어리석음을 아시니, 저의 죄악을 주님 앞에 감출 수 없습니다.</p> <p>6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주님을 바라는 이들이 저 때문에 조롱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을 찾는 이들이 저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p> <p>7 참으로 주님을 위하여 내가 모욕을 당하고 제 얼굴은 수치로 덮였습니다.</p> <p>8 저는 제 형제에게 남이 되었고 친형제에게 이방인이 되었습니다.</p> <p>9 참으로 주님의 집을 위한 열심이 저를 삼켰고,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저에게 쏟아졌습니다.</p> <p>10 제가 금식하고 영혼으로 애통하였으나 저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p> <p>11 굶은 배옷을 입었으나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습니다.</p> <p>12 성문에 앉은 자들이 저를 비웃고, 나는 주정꾼들의 조롱 노랫거리가 되었습니다.</p> <p>13 그러나 저는, 저의 기도를 주님께, 여호와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 주님의 무한한 자비하심으로, 주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응답해 주십시오.</p>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더운 여름에는 계곡이나 바다로 놀러가는데, 어렸을 때에 물에 빠진 기억이 있는 사람은 그러한 장소를 피합니다. 아이들이 물을 무서워하면 배꼽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하면서 데리고 가는데, 가슴을 넘어서 목까지 가면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러한 곳은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의 예를 들었지만, 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서 어려운 일을 당한 일이 있다면 그러한 장소는 다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몸이 반응을 하여서 그러한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69편은 여러 가지 시상이 교차적으로 사용됩니다. 처음에는 큰 물이 목까지 차오르고 물결에 휩쓸린 경험을 말하는데, 다음 연에서는 머리털보다 많은 원수가 조롱하는 것을 호소합니다. 한 집에 사는 친형제가 이방 사람처럼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에 관하여 말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때에 성전에 나아가고 금식하며 기도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동네의 주정꾼이 조롱합니다. 사회적으로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

람의 조롱이 자기에게 쏟아지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온전히 살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편 69편은 36절이나 되는 긴 시편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미지가 사용되어서 이해하기가 어렵게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아래와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3, 14-29, 30-36절로 나누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1-3절. 큰물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14-15절. 큰물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4-5절. 원수에게서 구원해 주십시오.	16-18절. 원수에게서 구원해 주십시오.
6-12절. 원수의 조롱과 수치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19-21절. 원수의 조롱과 수치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22-28절. 원수에게 보복해 주십시오.
13절. ‘그러나’ 하면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함.	29절. ‘그러나’ 하면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함.
30-36절. 주님의 구원에 대하여 감사의 찬송을 드림.	

1-29절은 비슷한 내용이 두 번 반복됩니다. 큰물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1-3, 14-15절에 나오고,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4-5, 16-1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6-12, 19-21절은 원수의 수치와 조롱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원수들이 사용하는 무기가 수치와 조롱인데, 거기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물’ - ‘원수의 공격’ - ‘조롱’으로 이미지가 전환하면서 원수의 조롱이 시인의 영혼에 물처럼 쏟아지고 시인을 휩쓸고 가는 것을 생생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미지의 전환이 1-12절과 14-21절에서 두 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두 부분은 13절과 29절에서 ‘그러나’로 시작하는 기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22-28절은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내용인데, 반복되지 않음으로써 더 강조되는 예가 됩니다.

다양한 시상을 사용하는 69편은 시편 22편과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노래한 대표적인 시입니다. ‘성전을 위한 열심이 나를 삼켰다’는 말은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장면에서 나오고, ‘마실 것으로 식초를 주었다’는 구절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주는 부분에 나옵니다(마 27:48; 막 15:36; 눅 23:36; 요 19:29). 또한 ‘저희의 거처로 황폐케 해 달라’는 시인의 기도는 예수님을 배반한 가롯 유다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행 1:20). 바울 사도는 이 시편을 교회의 삶에 적용하여 가르치기도 합니다(롬 15:3). 시편 69편은 신약에서 15번 정도 인용되기 때문에 이 시편을 잘 이해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서나 교회의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1-13절까지를 읽으면서 시상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 부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나머지 부분을 읽되 그리스도인인 우리와 어떠한 관련이 되는지에 더 관심을 갖고서 묵상하겠습니다.

1. 원수의 조롱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1-13절)

1) 물과 원수에게서 구원해 주십시오 (1-5절)

¹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목까지 물이 차올라 왔습니다.

² 깊은 수렁 속에 빠지니 발을 디딜 곳이 없습니다.

깊은 물속에 빠지니 큰 물결이 저를 휩쓸어 갑니다.
³ 목이 타도록 부르짖다가 저는 기진하였고,
 나의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두 눈은 침침해졌습니다.

시인은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호소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구원해 달라고 구하는 이유는 물이 목까지 차올라 왔기 때문입니다. 물이 가슴까지만 차올라도 겁이 나는데, 목까지 차올라서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발을 디딜 곳이라도 있으면 살아날 소망이 있겠지만, 시인은 발 디딜 곳조차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고 그 위로 큰 물결이 휩쓸어 갑니다. 흉용하는 물결이 덮쳐서 휩쓸려가자 정신이 아득하여졌습니다. 거의 죽게 된 그 순간에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3절을 보면 시인은 목이 타도록 부르짖다가 기진하게 되었다고 호소합니다. 물에 빠졌는데 목에는 불이 났습니다. 그 정도로 시인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의 눈은 주님만을 간절히 기다렸고, 시력을 잃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깊은 물과 큰물에 빠졌다는 것은 이처럼 큰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4절에서는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⁴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거짓으로 나를 없애려는 원수들이 힘도 셉니다.
 흠치지 않은 물건이라도 나는 물어내야 합니다.

큰물처럼 자기를 삼키려는 세력은 시인의 머리털보다 더 많은 원수들입니다. 머리털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원수들이 시인의 생명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시인의 원수가 되어서 까닭도 없이 시인의 생명을 끊으려고 합니다. 이유를 알면 방어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막무가내로 큰 힘을 가지고 덤빉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피하고 싶어도 그들은 삽시간에 시인에게 접근하여서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흠치지 않은 물건이라도 나는 물어내야 합니다.’ 하는 이 작은 말은 시인이 처한 어려움을 잘 표현합니다. 이유도 없이 시인을 미워하는 원수들은 근거도 대지 않고 시인에게 어떤 것을 물어내라고 합니다. ‘그 물건을 내가 흠치지 않았다’ 하고 말해 보려 하지만, 큰물이 덮치는 것처럼 그들은 시인의 말을 덮어 버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빼앗아 갑니다.

원수들이 시인을 미워하고 끊어 내려고 하면서 시인이 취하지도 않은 것들을 물어내게 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을 무리하게 요구하여서 빼앗아 갔다면, 다음에는 정도를 높여서 다른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온갖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시인의 생명을 끊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달성할 때까지 그들은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디딜 곳이 없는 수렁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물이 목까지 차서 숨이 가쁘고 큰물에 휩쓸려가는 상황입니다. 많은 원수들이 큰물처럼 덤벼들어서 사회의 법과 제도가 하나도 남지 않은 무법 지경(無法地境)입니다.

이것은 포로기 상황과 잘 들어맞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그것 참 맛있게 보이는데, 내어놓아라’ 하면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내어놓아야 합니다. ‘네 딸이 참 예쁜데 우리 집에 와서 일을 좀 하게 하라’ 하고 말하면 꿈쩍없이 딸을 빼앗깁니다. 더 나아가서 ‘네 부인도 예쁘구나’ 하면서 이 상한 요구를 하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주자면 끝이 없습니다. 재산과 생명이 원수의 손에 달려 있는 셈입니다. 그들은 시인을 멸절시키려고 하면서 취하지 않은 것을 내놓으라고 시비를 걸어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을 물어 주었지만 다음에는 더 큰 것을 빼앗아 갈 것이고, 마지막에는 목숨까지 요구할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설 곳이 없는 수렁에 빠져서 서서히 죽어가는 형편입니다. 사회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칙과 법도 없고, 큰물이 휩쓸고 간 뒤에 무질서와 혼돈만 남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때에 시인은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⁵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의 어리석음을 아시니,
저의 죄악을 주님 앞에 감출 수 없습니다.

5절의 말씀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는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이유가 없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호소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자기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갑자기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시선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어리석음과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서 우리는 시인의 경건함을 봅니다. 머리털보다 더 많은 원수들이 큰물처럼 자기를 덮쳐서 발로 디딜 곳을 찾지 못하고 급류에 휩쓸려 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면, 사람은 본능을 따라서 대처하기가 쉽습니다. 원수의 거짓된 것과 공격에 맞서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어려움을 주님께 호소하지만,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말을 삼가고 자기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심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사정도 이렇게 찬찬히 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기뿐 아니라 주님을 바라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생각하면서 주님께 호소합니다.

2) 주님을 위한 열심과 원수의 조롱 (6-12절)

⁶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주님을 바라는 이들이
저 때문에 조롱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을 찾는 이들이
저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시인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께 호소를 하는데, 자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찾는 사람들이 자신으로 인해 조롱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시인이 평범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과 같은 왕이 수치를 당하면 그 백성 전체가 어려움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이 시인에게에는 하나님의 집을 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 열심은 그를 삼킬 정도로 큰 열심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시인을 지목하여 없애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세상의 간교한 전략을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을 잡아 없애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신앙도 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동자를 잡아서 꺾으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신앙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시인을 핍박하였습니다.

시인도 세상의 그러한 책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 사실을 아뢰는 것입니다. 자기만 꺾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다른 성도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원수의 핍박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군의 주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도움을 구합니다. 이러한 간구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 ⁷ 참으로 주님을 위하여 내가 모욕을 당하고
제 얼굴은 수치로 덮였습니다.
⁸ 저는 제 형제에게 남이 되었고
친형제에게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⁹ 참으로 주님의 집을 위한 열심이 저를 삼켰고,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¹⁰ 제가 금식하고 영혼으로 애통하였으나
저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¹¹ 굶은 베옷을 입었으나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습니다.
¹² 성문에 앉은 자들이 저를 비웃고,
나는 주정꾼들의 조롱 노랫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고난을 받는 시인은 자기의 고난과 수치에 대하여서 주님께 호소합니다. 7절에서는 주님을 위하여 ‘모욕’을 받았다고 하고, ‘수치’가 얼굴을 덮었다고 합니다. 수치가 얼굴을 덮는 좋은 예는 침 뱉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을 보면 형이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서 형의 집을 세워 주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 규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얼굴에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부끄럽게 만들라고 하였습니다(신 25:7-9). 시인의 얼굴에 수치가 덮였다는 것도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우리는 수치를 ‘개인적인 부끄러운 감정’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수치를 ‘공개적인 행위’로 이야기합니다. 시편 127편에서 ‘성문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성문에서 열린 재판에서 그의 의가 입증된다는 말입니다. 그 사회에서 인정을 받으면 영광이지만, 그 사회에서 버림을 받으면 수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수치와 조롱에는 이렇게 사회적인 측면이 있는데, 가족에게서 버림을 받는 것은 최고의 수치가 됩니다. 사실 밖에서 공개적인 비난을 받아도 가족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받아 주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69편에서는 가족조차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이 시인을 멀리합니다. 따라서 시인은 ‘저는 제 형제에게 남이 되었고 친형제에게 이방인이 되었습니다’(8절) 하고 고백합니다. 식구들도 그를 이방인처럼 여기고 아무도 동정하거나 따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세상의 전략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어려움과 수치를 당한 시인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함으로써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수치를 하나님께 들고 가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고백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열심을 품고 있고 그 열성이 자기를 삼킬 정도인데, ‘주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의 모욕’이 자기에게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시인이 당하는 수치와 모욕이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에게서 나왔다고 아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당하시는 모욕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그 모욕이 주님의 성전을 위한 시인의 열심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습니까? 10-12절에서 그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시인의 열심이란 바로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온에 있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 제사를 드려서 사죄함을 얻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시인은 애통하고 금식하며 굶은 베옷을 입고서 회개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조롱하였습니다. 시인은 영혼으로 통곡하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성문에 앉은 지도자나 주정꾼들이 그러한 것을 보고 조롱하였습니다. 성문에 앉은 높은 사람부터 술주정뱅이까지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시인을 조롱하고 있었고, 시인의 비통한 울음이 이방인의 비웃음에 덮였습니다. 그때에 시인은 그러한 조롱을 하나님과 연결시켰습니다. 성전을 위한 마음을 품고 회개하는 행위를 조롱하는 것

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조롱이 자기에게 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지만, 회개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조롱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호소한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의 조롱이 큰 물소리처럼 시인의 영혼을 압도하였습니다. 물이 먹까지 차서 그를 질식사키려는 것처럼, 그러한 조롱의 노랫소리가 그의 영혼을 가득 채워서 신앙의 큰 위기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시인은 조용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3) 시인의 기도 (13절)

¹³ 그러나 저는, 저의 기도를 주님께,
여호와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 주님의 무한한 자비하심으로,
주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3절은 매끈하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히브리어는 끊긴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기도를 주님께, 여호와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 주님의 무한한 자비하심으로, 주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원수들의 조롱하는 소리가 그의 영혼을 가득 채울 때에 시인은 말을 찾아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순간에 청산유수처럼 말을 이어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끊긴 말에 시인의 진실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심하게 말을 더듬지만, 시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에 확실한 구원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자기가 응답받는 시간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은 매우 절박하고, 기도의 어조도 매우 절박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여유가 느껴집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때에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는데, 어디에서 그러한 여유가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시인은 주님의 무한한 자비하심, 언약의 사랑인 ‘헤세드’에 호소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께서는 친히 그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위의 상황은 어렵고 사방에는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뿐이지만 시인에게는 언약의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흉용하는 물에 숨이 넘어가는 것같이 위급해 보이지만, 시인은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에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사랑을 알 때에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 누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을 놓치면 금방 큰일이 날 것이다’ 하면서 무엇을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야단을 부려도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항상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에 들어주실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2. 예수님의 수치와 영광

69편을 읽으면서 두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첫째, 이와 같이 흉용하는 파도와 같은 조롱의 말을 듣고 또한 사람의 생명 유지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음식으로 조롱을 받은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성전을 위한 열심을 품고

회개하였다는 이유로 그렇게 큰 조롱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둘째, 누가 그렇게 큰 조롱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에 구원해 주시기를 잠잠히 기다렸습니까? 두 가지 질문은 모두 ‘누구인가’에 대한 것인데,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성전 된 자기 육체를 두고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69편을 읽을 때에 자연스러운 귀결로서 떠오릅니다. 성전의 뜻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의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아버님의 손에 모든 것을 의탁하시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시편에서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수치와 조롱이 강조됩니다. 그분은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과 관련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뜻을 계시하시는 선지자이신데, 그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침을 뱉고 때렸습니다. 그리고 누가 때렸는지를 알아 맞추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러한 정도의 선지자를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우리의 임금님이신데, 그들은 예수님에게 흥포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쥐게 하면서 조롱하였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유대인의 왕이며, 평안할지어다" 하고 인사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뺨도 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말을 붙이고 좌우에 강도가 달리게 하였습니다. 왕을 보좌하는 자들로 강도를 돕으로써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조롱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참된 성전이고 제사장이고 제물로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였으니까 한 번 내려와서 증명해 보이라고 합니다. 십자가로 참된 성전을 지어가시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며칠 전에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송하였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던 자들이 어둠의 세력에 잡혀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뿐 아니라 유대의 왕 헤롯, 그리고 유대 민중들, 또한 이방인의 집권자인 빌라도와 로마 병정들, 온 세상이 연합하여서 예수님을 공격하였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지만 그날에는 친구가 되어서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을 뿐 아니라 속옷까지도 벗겨서 수치스럽게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조롱하였고 위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큰물이 목까지 찼다는 시편 69:1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사실이 되었습니다. 어둠이 온 세상을 장악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입에서 이 시편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 마르다 하시니 29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윳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30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요 19:28-30)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처음 가셨을 때에는 로마 군인이 준 몰약을 섞은 포도주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몰약 섞은 포도주는 마취 효과가 있어서 십자가의 고통을 줄이는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순간에는 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시편 69:21에 "그들은 저의 먹을 것에 쓸개를 넣고 목마를 때에 식초를 마시게 합니다"는 구절을 놓고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식초처럼 시어진 그 포도주를 가지고 오게 하려고 “목 마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려고, 조롱하는 원수들을 향하여서 “목 마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신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69

편의 말씀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마음에 시편 69편이 흐르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때에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역 초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시편 69:9의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17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18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19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사십육 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구절을 읽으면 예수님의 대답은 동문서답입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려면 요시아왕이나 여호야다 제사장과 같은 큰 인물이어야 하는데,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느냐고 유대인들이 묻은 것입니다. 나사렛 청년이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따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사람들이 조롱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69편에서 성전을 위한 열심을 품고 금식한 사람을 성문에 앉은 사람이 조롱한 것처럼, 그들은 성전의 참된 의미를 이야기한 예수님을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 대신에 장사하는 소리로 가득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자 앓는 그 성전의 참 뜻을 이루시려고 사람의 조롱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수난의 맥락에서 69편을 읽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투었듯이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편을 만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불품없고 비천한 위치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세상에 오셔서 수치와 조롱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구원의 일을 다 이루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를 데리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의 일부로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걷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69편을 읊조리면서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시편을 부르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십니다. 시인은 하나님 때문에 멸시를 받았고 죽음의 어려움에 처하였지만, 그러한 어려움에 눌리지 않았고 오히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시인은 '저는 가련하고 고통 중에 있으니, 하나님, 주님의 구원으로 저를 높이 세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시안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큰 조롱을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은교회. 2005년 3월 30일; 신학교 경건회. 2010년 11월 23일)